

[나의 책 나의 학문]

나의 삶, 나의 학문

김영배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I

장맛비는 그칠 줄 몰랐다. 빗물로 불어난 시냇물이 가슴까지 차올라 왔다. 떠나려갈까 봐 서로서로 손을 잡고 조심조심 건넜다. 둘러멘 룩색이 물에 젖어 쇠덩어리처럼 무겁다. 몸은 뺏속까지 젖었다.

깜깜하던 주위가 조금씩 밝아지자, 안내자는 이제 안심해도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제 막 38선을 넘은 일행은 그 말만으로는 불안과 공포를 떨칠 수가 없었다. 잠시 후 남한의 경찰 초소가 나타났다. 이제 살았다. 내가 자유의 땅에 서 있다는 것이 이제야 믿어졌다. 장맛비가 줄기차게 쏟아지는 어느 여름날, 새벽의 여명과 함께 나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것이다. 내 나이 열여덟 살이던 1948년 7월 하순의 일이다. 정확한 날짜는 아예 잊어버렸다. 그때의 불안과 공포를 다시 떠올리기 싫어 애써 기억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도 비 오는 날이면, 마음이 편치 않다.

고향 영변을 떠난 것은 하루 전이었다. 선친과 필자, 그리고 이종누님의 시어머님, 이렇게 셋이었다. 평양에서 하룻밤 자고 나서 해주에 도착하였다. 당시 소련군 점령하의 북한에는 공산 정권이 수립되어, 모두들 갈 수만 있

다면,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가려고 애를 썼다. 해주에서 만난 길 안내자는 어둠을 기다려, 우리를 낫선 서너 명의 남자들과 함께 트럭에 싣고 해주 비행장 근처 어떤 빈집까지 데리고 갔다. 밤이 깊어야 떠난다면, 안내자는 잠시 자리를 비웠다. 그곳은 소련군 경비 구역이어서 인민군은 없었다. 그러나 소련군도 공포의 대상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 소련 군인 서너 명이 총을 들이대며 닥쳤다.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야 만 것이다. 그때 잠시 자리를 비웠던 안내자가 돌아와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우리더러는 가진 물건을 모두 내놓고 꼼짝 말고 있으라고 했다. 소련군은 우리 소지품 중에서 값나갈 만한 것을 다 뒤져서 빼앗아 버리고 나머지는 돌려주며,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라는 말을 남기고는 사라졌다. 안내자는 이 정도로 끝난 것만 해도 다행이라면서 밤이 더 깊어지면 떠나자고 했다. 자정쯤 됐을까? 안내자가 앞장을 섰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그를 놓칠세라 부지런히 걸었다. 발소리, 숨소리까지 죽었다. 자유는 하늘로부터 타고나는 것인데, 나는 이렇게 자유를 훔쳐야 했다.

그날 개성까지 어떻게 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피란민 수용소를 거쳐 서울로 와서는, 청과동 선린상고 근처 이종누님 댁에 한동안 얹혀사는 신세가 되었다. 아무 연고 없이 온 사람들이 남산 언덕 해방촌에 천막을 치거나 판잣집을 지어 살았던 것에 비하면 다행이었다. 이북에 남아 있던 모친과 두 자매는 나중에 와서 합류했다.

이제부터 먹고사는 일이 문제였다. 열여덟 살 소년으로서는 할 일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마침 무슨 광고를 통해서 남대문로에 있는 어떤 무역 회사 사무실에서 심부름을 하게 되었다. 머릿속에는 온통 공부 생각뿐이었으나, 생계도 여의치 않은 형편이어서 혼자서 가슴앓이만 할 뿐이었다.

그러는 가운데 해가 바뀌어, 1949년 6월경, 신문에서 해군 군악 학교 학생 모집 광고를 보았다. 학교라는 이름에 끌려 무작정 응모하여, 진해에서 3개월간의 군사훈련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와 군악 학교 학생이 되었다. 그러나 그때 필자가 다룰 줄 아는 악기는 하나도 없었다. 다른 학생들은 거의 모두 악기를 다루어 본 경험이 있었다. 이렇게 어정쩡한 생활을 하던 중, 또

해가 바뀌어 6·25의 대환란이 일어났다.

당시 정부는 우리가 북진하면 38선을 넘어 평양을 단숨에 점령할 듯이 호언장담하였다. 그러나 장병들이 외출, 외박을 나간 일요일 새벽에 급습을 당하자, 불과 며칠 만에 서울을 인민군에게 내주고 말았다. 내가 속했던 군악 학교는 해군본부 소속이었는데, 철수 작전에 따라 6월 28일 해군기지가 있는 진해로 갔다가, 며칠 후 부산으로 이동했다. 때가 전시인지라, 우리 일과도 일반 사병과 다를 바 없었다. 나는 부두 경비대에 배치되었다가, 뜻밖에도 며칠 후 해군본부로 전출 가게 되었다.

그때 부산은 그야말로 북새통이었다. 나날이 불리해지는 전황으로 인해 피란민들이 끊임없이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는 동안 유엔군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서울이 수복되고, 필자도 서울 분실에서 얼마 동안 근무하였으나, 1·4후퇴(1951) 이후 다시 부산의 해군본부로 복귀하였다. 주로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본부 부서라서 몸의 고달픔은 별로 없었다. 근무가 끝난 저녁 시간에는 비교적 자유로웠다. 그러나 전쟁 통에도 나의 불확실한 장래로 인해 늘 걱정이었다. 공부를 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이런 난리 중에 운 좋게 본부 근무를 하게 된 것은 군악 학교 동기생인 P 군의 덕이었다. 그는 서울 출신이었는데 가정 사정 때문에 필자처럼 적성에 맞지 않는 곳에 지원하였다가, 부산에 온 후에는 필자보다 먼저 해군본부에 근무하게 되었다. 나는 그의 주선으로 해군본부로 발령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대학 입학도 그의 인도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니, 잊을 수 없는 은인이다. 그는 후일 모 재벌 회사에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 큰 신임을 얻어 끝내는 임원까지 되어 정년을 맞았다가, 몇 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먼저 떠났다.

II

P 군의 근무처는 부산항 제1부두에 있었고, 필자의 근무처는 당시 제5

육군병원 근처, 영도(影島)와 적기(赤崎)를 오가는 통선장(通船場) 옆이었다. 부산에서의 근무에 제법 익숙해져 가던 어느 날 P 군이 나를 찾아왔다. 9월 초였다. 난데없이 자기는 동국대학 국문학과에 입학했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필자에게 놀랍고도 부러운 소식이었다. 그때 피란지에서 개학한 대학은 몇 안 되었다. 불교 종단의 중립 학교였던 동국대학은 창선동에 있는 대각사 건물(광복 전 일본인들의 사찰)을 모두 빌려서, 큰 법당은 강당으로, 지하실은 판자로 칸막이하여 강의실로 쓰고 있었다. P 군은 동국대학이 임시로 야간 강좌를 개설하였음을 알고 입학한 것이었다. 그는 입학 절차는 자기가 도와줄 것이니, 어서 등록금을 마련해 보라는 것이었다. 피란하여 운송업을 하는 이종형님께 전후 사정을 이야기해서 등록금을 겨우 장만하고, 이북 5도 사무소에서 고등학교 졸업 인증서를 발급받았다.

필자는 일제 말기에 평안북도 영변 용산면 구장동에 있는 용문공업학교에 다녔었는데, 졸업을 몇 달 앞두고 38선을 넘었던 것이다. 용문공업학교는 영변읍내에 있던 기독교계의 남녀공학인 승덕(崇德) 학교에서 남학생만을 떼어내어 구장으로 옮긴 사립 중학교였는데, 광복 후에 용문중학교가 되고, 그 후 학제 변경으로 고급 중학교가 되어 있었다.

서류 제출과 간단한 면담을 거쳐, 학장이셨던 퇴경(退耕) 권상로(權相老) 선생께 인사드리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 그때의 가슴 벅찬 기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소속장의 허가를 받아, 근무가 끝난 후에 강의 시간에 출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음 해(1952년) 9월 신학기부터는 야간 강좌가 폐지되어 출석이 여의치 못하게 되었다. 틈을 보아 주간 강좌에 가끔 출석했으나, 모처럼 시작한 공부가 중단될 처지였다. 그동안에도 등록금 마련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어서 앞에서 말한 이종형님께 몇 차례 신세를 졌다. 당시의 소속장이셨던 권태춘(權泰春) 제독(提督)께서도 여러 차례 등록금을 마련해 주셨다. 이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의 학업은 계속되지 못했을 것이다.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되어, 피란 왔던 기관들이 속속 서울로 돌아가게 되었다. 동국대학도 9월 학기를 서울에서 개강하게 됐다. 그사이 필

자는 한 부서에서 오래 근무했다는 이유로 함정 근무로 발령이 났다. 이때 소속장이셨던 권 제독의 덕택으로, 함정 근무를 단기간에 끝마치고, 서울의 국방부 본부로 전속되었다. 이때 소속 과장에게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근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출석하여도 좋다고 허락해 주었다. 그러나 1954년 4월 신학기에는 휴학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필자와 같은 군인 신분의 학생이 많아지자, 대학 당국에서 이들의 학생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수 없이 5년 남짓의 군대 생활을 마감한 1954년 9월에야 복학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지막 두 학기는 열심히 공부하였다. 특히 양주동(梁柱東) 선생의 ‘고가연구’와 ‘여요전주’ 강의, 이병주(李丙疇) 선생의 ‘두시언해’ 강의를 열심히 들었는데, 이 강의들이 이후의 나의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 학기의 등록금은 집에서 마련하게 되어, 드디어 1955년 9월 졸업하게 되었다.

졸업 후 이병주 선생의 “두시언해비주”(통문관, 1958) 원고 필사를 도와 드리게 되고, 선생의 추천으로 직장(중동고등학교)도 정해졌으며, 대학원의 석사·박사 과정은 중동 재직 중에 마쳤다(석사 1961~1963, 박사 1969~1972). 대학원 시절에 동숭동 옛 문리대 강의실에서 타 대학 대학원생들과 함께 일석 이희승 선생의 강의를 들던 일, 청량리 경찰서 근처의 고 심악 이승녕 선생 댁으로 이제는 고인이 된 최범훈 교수와 함께 다니던 일이 눈에 선하다.

III

박사 과정 중에 필자로서는 첫 저서인 “석보상절 제23·24주해”(일조각, 1972)를 냈으며, 다음 해(1973. 3.)에 부산여자대학(현 신라대학교)에 전임 교수로 부임하게 되었다. 이제 제대로 학문의 길에 접어든 셈이니, 필자로서는 감격스러운 일이었다. 이어서 ‘석보상절’ 관련 글을 몇 편 쓰고, 박사

과정 중에 이미 썼던 ‘평안 방언과 구개음화’(“동악어문론집 6”, 1969)를 바탕으로 박사 학위논문을 준비하였다.

그때가 1976년이니, 국토가 분단된 지 이미 30년이 지난 뒤였다. 그동안에 북한의 언어는 그들의 독자적인 언어 정책으로 인해 남한의 언어와 많은 차이가 생기게 되었으니,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좀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나, 마침내는 언어 분화로까지 발전될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다. 필자는 언어 형성기를 북한에서 보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절실하게 느꼈고, 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과 의무감에서 이 주제를 선택하였던 것이다.

문제는 조사 방법이었다. 현지 조사가 불가능하니, 어쩔 수 없이 북한에서 월남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북 5도청을 통해 각 시·군민회장을 찾아가서 제보자를 추천받았는데, 다행히도 광복 전에 평안 남북도 3개 시, 33개 군에 살았던 분들을 골고루 찾을 수 있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넘어왔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 분들의 거주 지역도 대개 서울 시내여서 조사하기가 별로 어렵지 않았다. 제보자의 조건은 대략 세 가지로 정하였다. 즉 첫째는 월남하기 전까지 출신 지역에서만 생활한 사람, 둘째는 60세 이상의 노인, 셋째는 남한에 와서 서울말의 영향을 적게 받은 분들로 한정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3개월 남짓 되는 기간에 조사를 마쳤다. 자료 해석의 이론적 배경이 된 것은 석사·박사 과정을 이수하면서 혼자 읽었던 구조언어학 서적과 방언 관련 논문들에서 얻은 이론과 해석 방법이었다.

평안 방언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문제는 왜 평안 방언만이 ㄷ구개음화를 경험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책과 논문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알 수 없는 문제였다. 결국은 필자 자신의 실제 발음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그 원인을 알게 되었다. 원인은 음운론적인 것이 아니라 음성학적인 데 있었다. 즉 여타 방언의 /ㄷ, ㅌ, ㅊ, ㄴ/이 치경음(齒莖音)인 데 비해, 평안 방언의 그것은 조음점이 더 앞쪽인 치리음(齒裏音) 내지는 치간음(齒間音)이기 때문에 여타 방언에서처럼 구개음화하지 않음을 밝혀낸 것이다. 아울러

/ㅅ, ㅈ, ㅉ, ㅊ/이 여타 방언에서는 경구개음인데, 평안 방언에서는 치경음 입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일본어 ‘물’[midzui]와 ‘양철물통’[pak’etsi](<bucket)에 대한 발음에서도 알 수 있다. 치경음 [dz, ts]는 평안 방언에는 존재하지만, 여타 방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평안도에서는 이들을 각각 ‘(미)즈’, ‘(바께)쯔’로 발음하는 데에 비해, 여타 방언에서는 ‘(미)스’, ‘(바께)쓰’로 발음한다. 치경음 [dz, ts]를 ‘스, 쓰’로 대용(代用)하여 발음하는 것이다.

그러나 박사 논문에서 사용한 방법은 주관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실험 음성학적인 방법으로 조음 특성의 차이를 구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도한 두 편의 논문이 ‘ㅅ·ㄷ음의 실험음성학적 한 고찰’(“동국대학교 논문집”, 1988)과 ‘디지털 신호기법을 이용한 평안방언의 피치 연구’(“동국대학교 논문집”, 1991)이다. 전자는 일본 쓰쿠바(筑波)대학에 교환교수로 가 있는 동안(1987) 제보자의 음성 자료를 분석하여 귀국 후 통계 전문가에게 부탁해서 통계 처리한 것이고, 후자는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 이명호 교수와 공동 연구로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는 얻지 못하였다. 인간의 음성을 구별하는 데에 귀[耳] 역시 기계에 못지않게 유용함을 확인하게 된 계기였다.

한편,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지 못하고, 남한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였다는 점은 필자의 아쉬운 숙제로 남아 있다. 논문을 쓸 당시만 하더라도, 남북의 왕래가 자유로워지는 날이 온다면, 직접 북한의 해당 지역에 가서 조사하여 논지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기도 했다. 세월이 흘러 남북 관계가 많이 달라져 제한적이나마 북한 관광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방언 연구를 할 만한 분위기는 되지 못하고, 필자 또한 여력이 없다. 후학의 연구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정년을 맞으면서, 그동안의 방언 관련 연구 논문을 한 권으로 묶고, 자료집 한 권을 따로 내는 것으로 망향의 아쉬움을 삭였다. “증보 평안방언연구”와 “평안방언연구(자료편)”(모두 태학사, 1997)가 그것이다. 한편, ‘석보

상절'과 '월인석보'를 비롯한 불전 언해에 대한 연구도 나름대로 꾸준히 해왔고, 1991년 이후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주서 간행에도 참여하여, 금년에 간행할 “역주 월인석보 제20”(2004년 12월 간행 예정)을 포함하여 10여 책을 내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쓴 논문을 한 책으로 엮어 “국어사자료연구—불전언해 중심—”(월인, 2002)를 간행하기도 했다.

IV

돌이켜 보면, 일제 말기의 중학교 때는 근로보국대(勤勞報國隊)가 조직되어 수업의 절반을 전시 노력 동원으로 허송하였다. 광복 후에도 남북 분단으로 인한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 탓에 학교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월남 후 어려운 형편 때문에 군에 입대하였고, 6·25 전란 중 부산 피란지에서 군인 신분으로 야간대학에 입학하여 대학 공부라고 시작했으나, 그나마 오래지 않아 야간 강좌가 폐지되어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였다. 여러 곡절 끝에 군을 제대한 다음에야 겨우 마지막 두 학기를 정상적으로 공부했으니, 얼마나 부실한 대학 생활이었던지 모른다. 첫 직장이었던 중동고등학교(17년)와 전임 교수로 처음 부임한 부산여자대학(현 신라대학교)을 거쳐, 다음 근무 학교인 상명여자사범대학(현 상명대학교) 재직 시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1977. 8.), 1980년 이후 모교 강단에 서서 1997년 2월에 무사히 정년을 맞았다.

과란곡절이 많았던 젊은 날에 나를 도와 준 여러 상사와 동료들의 은덕이 아니었다면 그나마의 결실도 맺을 수 없었을 것이다. 고마운 마음 끝이 없는데, 값을 길 없음이 한스럽다. (2004. 11. 26.)